

女性의 労動市場 移動: 個人的-構造的 決定要因들에 관한 理論的 概觀

방하남*

20세기 후반 선진 산업사회가 경험한 두드러진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결혼-출산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의 꾸준한 증가이다. 이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남성지배적인 직업구조의 변화, 여성들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인 '가정'이라는 사회제도에 있어서의 성역할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 및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생애과정에 있어서의 인구학적 변화 등과 상호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 그리고 여성 자신들의 태도의 변화를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개방주의적 변동은 성에 기초한 노동의 사회적 분할 — 즉 남성 = 경제활동, 여성 = 가사 돌봄 — 을 지탱해 온 가부장적 경제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잠식을 가져왔고, 그 결과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계획을 갖게 되었다.

가족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기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행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가 부분참여(part-time)보다는 완전참여(full-time)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 혹은 휴직 이후 다시 복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곧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공분야: 노동시장, 사회계층

주요논문: “新興 開發國에서의 構造變動과 世代間 階級移動: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호)(이성균과 공저)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미국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30집(봄호).

연락처: 전화: 783-6083

팩스: 784-7684

e-mail: phang@ns.kli.re.kr

본 논문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및 진입-퇴출의 동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구조적 수준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1) 여성의 나이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변화, (2) 여성노동력 공급이론, (3) 교육과 노동시장이동, (4) 파거의 고용경력과 노동시장이동, (5) 성역할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행위, (6) 노동시장의 사회학: 여성 노동력 이동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 (7) 노동시장이동의 동태적 분석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들에 관하여 논한다.

1. 서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꾸준한 증가는 20세기 후반 선진 산업사회가 경험한 두드러진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히 생애주기적으로 노동시장 퇴장 시기인 출산-양육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그 수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행위자체에 있어서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Bianchi and Spain, 1986; Oppenheimer, 1970; Smith and Ward, 1985; Young, 1990). 이러한 참여율 증가는 경제적 유인요소들, 즉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확대 이외에도 젊은 여성들의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의 지연 및 포기율의 증가,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같은 여성들의 전통적인 활동 영역인 '가정'이라는 사회제도와 생애과정(life course)에 있어서의 인구학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Bumpass, 1990).

동시에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 그리고 여성 자신들의 태도의 변화를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개방주의적 변동은 성에 기초한 노동의 사회적 분할 — 즉 남성 = 경제활동, 여성 = 가사 돌봄 — 을 지탱해 온 가부장적 경제 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잠식을 가져왔고(소콜로프, 1990), 그 결과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계획을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몇십 년간 구미에서의 이혼율의 지속적 증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대로 '가족'이라는 경제적 보장체의 역할약화는 곧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 안주하는 생의 과정 선택을 덜 바람직하게 만들었고 만약의 경우에 경제적인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취업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Bianchi and Spain, 1986; Oppenheimer, 1988).

과거 몇십 년간에 걸친 이러한 가족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기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행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가 부분참여(part-time)보다는 완전참여(full-time)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Bianchi and Spain, 1986; Masnick and Bane, 1980)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 혹은 휴직 이후 다시 복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Mott and Shapiro, 1983).¹⁾ 이러한 추세는 곧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Hogan, 1981; Oppenheimer, 1988). 시장노동이 이처럼 여성들의 생애의 성취과정에 대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퇴장과정을 결정하는 개인적, 구조적 수준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개관을 제시한다. 이론적 수준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사회구조와 과정 안에서의 경험적 연구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본 논문은 서구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의 여성노동력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로 부기할 것이다.

2. 본론

1) 과거의 정태적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

개인(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불참여는 본질적으로 동적인 과정이다. 정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동적인 과정이 갖는 속성중의 하나는 변화, 혹은 이동이 연속시간적(continuous-time)이라는 것이다. 즉 적어도 이론적 가능성의 수준에서는 개별 여성의 참여-불참여 상태간의 이동은 어느 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1) 한국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양상은 아직 전통적인 나이구조인 쌍봉(bimodal)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어수봉, 1993; 김훈, 1995) 구미의 이런 추세가 일반화되기 어렵다. 참고로 어수봉(1993)에 의하면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교육계층은 국졸 이하로 약 82%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료 및 적절한 분석도구의 결핍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횡단면(cross-sectional)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정태적(static) 연구에 그쳤고(즉 Bowen and Finegan, 1969; Cain, 1966; Mincer, 1969; Smith, 1979; Sweet, 1973), 따라서 그 결과들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동과 정과 그 결정요인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경제학에서의 전형적인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여성표본을 결혼 혹은 출산상의 지위(기혼-미혼, 출산전-출산후)에 따라서 나누어 분석하거나 그러한 지위를 하나의 속성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참여-불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시장 참여-불참여는 본질적으로 정적인 상태(static state)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이며 결혼-출산과 같은 생애과정상의 지위변화 또한 동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동적인 과정을 정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이고 둘째는 결혼-출산 등과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이동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적인 과정과의 상호의존성(dynamic interdependence)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Phang, 1994).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는 동적인 과정을 정태적 변수로 취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기간편의표본(length-biased sampling)의 문제, 즉 실업의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어느 한 시점에서 실업자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 생길 수 있는 편의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정태적 상태변수(참여-불참여)에 대한 분석이 아닌, 상태간의 동적인 이행(참여↔불참여)과정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Flinn and Heckman, 1982; Lancaster, 1990: 95).

둘째로 여성의 생애과정과 노동시장이동간의 동적인 상호의존성의 문제는 결혼-출산과 노동시장 참여-불참여에 대한 여성 개인의 선택 혹은 결정이 시간적 차원에서 전-후관계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동시적이라는(simultaneous) 사실에 연유한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정적인 분석들로는 두 과정간의 이러한 동적인 동시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불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결혼상의 지위를 설명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모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여성에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불참여는 결혼상의 지위의 결과 변수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과정간의 상호연

계의 쌍방향적일(reciprocal)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이동 과정을 결혼-출산과 같은 생애단계의 전이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예를 들어 Felmlee, 1984; Desai and Waite, 1991; Long and Jones, 1980; Moen, 1985; Mott and Shapiro, 1978).

2) 나이와 생애주기(生涯週期)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변화

하나의 인구학적 변수로서 나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과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나이는 그들의 경제활동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등과 같은 가정형성의 제 단계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Hogan and Astone, 1986). 전통적으로 젊은 여성들은 결혼, 출산 연령을 전후로 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여 육아기간 동안 노동시장의 밖에 머문 후 일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일부는 장기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양상을 보여 왔다(Bowen and Finegan, 1969; Cain, 1966; Sweet, 1973).²⁾ 가정형성과의 연관성 외에도 나이는 또한 노동시장 안에서의 경험 및 인적 자원의 축적, 정신적 성숙, 그리고 중심부문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참여지속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Lorenz and Mortimer, 1985; Mare, Winship, and Kubitschek, 1984, Mott and Shapiro, 1978; Osterman, 1980).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의 태도나 가치가 더 성숙되어 가고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안정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Moen, 1985; Osterman, 1980; Waite, 1981).

오스터만(Osterman, 1980)은 학교를 마친 젊은이들이 본격적인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까지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본다. 그 첫 단계는 '탐색' (moratorium)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는 자기 진로의 열려진 가능성 때문에 안정된 직업보다는 여가활동과 동기들과의 그룹활동이 더 중요한 시기이며, 둘째는 '정착' (settling down) 단계로서 안정된 직업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 되게 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성인 초기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문제적인 시기가 아니라 보다 안정된 고용상태로 들어가기 이전의 생산적인 탐색기간으로 보아야 한

2)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율의 양봉구조(bimodality)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oen, 1985; Smith and Ward, 1985).

다는 논의도 있다.

일(work)과 가정(family)은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상호의존적인 두 주요 활동영역을 대표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은 가정형성의 다이나믹스(dynamics)와의 연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Becker, 1965; Franz, 1985; Moen, 1985). 다른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건들이다. 이 생애사건들은 생애주기의 각 단계들을 형성하며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변화하는 '상황'을 형성한다(Bielby, 1992; Willekens, 1987). 그 상황에 따라서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결정변수들이 변하고 결정함수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 및 출산을 전후한 각 단계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관한 결정은 각각 다른 선택상황(context)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력 참여와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거의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잘 입증된 사실이다(Cramer, 1980; Desai and Waite, 1991; Hout, 1978; Sweet, 1973). 그러나 과거의 연구들에서의 이러한 결론은 대부분 횡단면적(cross-sectional) 표본에서의 결혼, 출산여부에 따른 노동력참여 비율의 차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그러한 결과를 냉정 개인 차원에서의 미시적 전이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들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장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에의 진입-퇴장이 잦아서, 즉 지속적 참여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둘의 복합적 현상인지를 정태적 연구로는 규명하기 어렵다. 최근에 연구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 장기추적자료(longitudinal data)들은 과거의 횡단면적 표본분석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근간이 되는 미시적 과정을 규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Desai and Waite, 1991; Felmlee, 1984; Long and Jones, 1980; Moen, 1985; Phang, 1994; Rosenfeld, 1980 참조).

로젠펠드(Rosenfeld, 1980)는 실제로 개인들의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장기추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고용지속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모엔(Moen, 1985)은 최근에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들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그들의 노동시장참여 및 고용형태가 아직도 비정규적이고(casual) 단속적(intermittent)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인구수준에서 관측된 참여율증가가 곧 개인적 수준에서의 고용지속율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엔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최근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젊은 여성들의 고용-비고용상태 사이의 생애에 걸친 전이과정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최근의 연구(Chang, 1997; Phang, 1994)는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행태에 있어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결혼-출산후 비고용상태 혹은 노동시장 퇴장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빠른 복귀(reentry)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결혼-출산이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의 퇴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젊은 여성들 세대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반대의 과정, 즉 비고용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재진입 속도는 최근의 젊은 세대 가운데서 훨씬 빨라져서 결혼-출산후에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젊은 나이세대 가운데서 훨씬 높은 것을 암시해 준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젊은 여성 노동력 가운데서 결혼-출산으로 인한 장기 혹은 영구 노동시장 퇴장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3) 여성노동력 공급이론

경제학적 노동공급이론은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에 어떻게 제한된 자원인 시간을 분배하는가, 그 결정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신정통주의 경제학(Becker, 1965; Mincer, 1962)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의 두 가지 임금, 즉 시장임금(market wage)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에 대한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불참여를 결정한다(Mincer, 1969; Heckman and McCurdy, 1980; Nakamura and Nakamura, 1991; Schultz, 1979). 여기에서 시장임금은 여성이 일을 할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주로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적 추정치를 지칭하고, 의중임금은 여성이 가사일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의 시장가치, 즉 노동공급가격을 지칭한다. 따라서 여성이 시장노동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할 경우 시장임금은 노동시장 불참여로 인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대표하고 의중임금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가족의 복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대표한다.

경제학적 행위가설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두 임금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아야 여성들은 가사일의 일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다(Gronau, 1973; Heckman, 1974; Nakamura *et al.*, 1979). 이는 다른 한편 시장임금이 일반적으로 높더라도 의중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흔히 고학력 여성들 가운데서 관측되고 있는 데, 리보위츠(Leibowitz, 1974)의 이론에 의하면 이는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데 쓰는 시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어서 시장임금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경제적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적으로 배우자의 수입도 높아 배우자의 수입이 부인의 노동시장 불참여로 인해 생기게 된 수입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Mincer, 1969).

반면 남편 및 다른 가족원의 수입은 가족의 경제사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바, 가족원(자녀)의 수 및 나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남편의 수입이 낮을수록 가족의 경제적 필요, 즉 부가적 수입을 위해 부인이 시장노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또한 높을 것이다. 이는 가족의 당면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여성의 의중임금, 즉 노동공급 가격이 부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 때문일 것이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이러한 가구 내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주관적 차원에서 느끼는 경제적 필요성(perceived economic need)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호프만(1963)은 여성들의 참여결정이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에서의 수입만족도(relative income satisfac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분상승욕구나 준거집단과의 비교 혹은 가족마다 다른 소비수준에 따라 상대적인 수입만족도가 다를 수 있

3) 가족의 경제적 필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갖는 함의는 남편-부인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구조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위에서 가정한 소득효과는 남편이 없는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는 남편의 수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시장노동에 대한 경제적 필요가 더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혼한 상태에 있거나 별거중이어서 다른 소득원이 없는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유배우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고 있는 것(Bowen and Finegan, 1969; Cain, 1966; Sweet, 1973)은 가족내의 당면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이러한 수입만족도의 정도에 따라서 부가적 소득을 목적으로 한 노동시장 참여가 있을 수 있다(Mott and Shapiro, 197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계는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non-linear)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incer, 196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불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위에 개관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하면, 여성의 시장임금 및 의중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귀착이 된다. 시장임금은 경제학적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변수들, 즉 교육(지능), 훈련, 경험 그리고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 등 소위 '인적 자본' (human capital)에 따라 주로 결정되고, 의중임금은 가사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하는 시간의 양과 그 부여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주로 결혼 및 출산 여부에 따라서 변화를 보인다(Heckman 1974; Nakamura *et al.*, 1979).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임금이 높아 노동시장 참여도와 고용안정도가 높으며, 결혼을 한 여성과 출산을 앞두거나 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보다 의중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만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참여하더라도 진입-퇴장 횟수가 잦은 불연속적 참여를 하는 경향이 높다(Desai and Waite, 1991; Long and Jones, 1980; Moen, 1985; Rosenfeld, 1980; Sweet, 1973).

4) 교육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 가운데 교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과 중요한 연관을 갖는다. 교육은,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미래의 노동시장 참여를 대비한 과거의 투자이며, 시장에 참여할 경우 고용확률 및 임금수준의 중요한 결정변인이다(Becker, 1965; Mincer, 1969; Mincer and Polachek, 1974). 따라서 일반적 가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아져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⁴⁾ 동시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율이 낮고 실업이 되었을 경우라도 재취업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교육과 고용지속성은 경험적으로 정(正)적 연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Sweet, 1973).

4) 한국 여성 노동력의 경우 이와 반대의 현상에 대해 어수봉(1993) 참조.

교육수준은 또한 결혼 출산 등 다른 생애전이사건들과의 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정형성 행위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Alexander and Riley, 1981; Blau and Ferber, 1986; Marini, 197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초혼 초산 연령이 낮아(Bumpass, Castro-Martin, Sweet and Marini, 1984) 일찍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안게 되어 학교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경력을 쌓기가 힘들며 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에 비해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즉 낮은 인적자본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리함과 조기 결혼-출산이라는 제한조건으로 인한 낮은 혹은 불연속적 노동시장 참여이다.

교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기회구조, 즉 부문적 위치 및 고용조건과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구조주의적 관점(Beck *et al.*, 1978) 혹은 이중 노동시장론(Montagna, 1977; Piore, 1974)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일차부문', '이차부문'의 이중의 구조로 분단화되어 있는데 일차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조건, 승진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좋고 반면에 이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고용조건, 낮은 직업안정도 및 승진기회의 부족 등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개인이 고용되는 부문적 위치는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에 구조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차부문에 위치한 노동력은 위의 조건들 때문에 높은 실업율과 불연속적 참여행태를 보인다. 그런데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일차부문보다는 이차부문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인적자본으로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외에 노동시장내의 부문적 위치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도 미치게 된다(소콜로프, 1990).

5) 과거의 고용경력(雇傭經歷)과 노동시장 이동

과거의 고용경력(employment history)도 현재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고용경력은 처음 노동시장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고용경험과 고용의 계속성 정도를 지칭한다. 경험이 많은 노동력일수록 그리고 과거의 고용경력이 안정된 노동력일수록 직업과 관련된 기술의 축적이 많고 그에 따라서 임금과 승진 기회도 높아질 것이다(Heckman, 1979). 임금과 직장 내에서의 승진 기회

가 높아질 수록 불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노동 시장으로부터 퇴장할 확률이 낮아지며, 노동 시장 밖에 있었을 경우는 다시 진입할 확률이 높아 질 것이다. 더욱이 만약 고용주들이 과거의 고용노동경험과 경력을 일에 대한 협신도나 잠정적 생산성의 표시로 본다면 경험이 많고 안정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노동력이 그렇지 못한 여성 노동력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높고 고용되었을 경우 해고될 위험도 더 낮아 고용상태로부터의 퇴장율이 낮고 재진입율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Heckman and Borjas, 1980; Lynch, 1985; Osterman, 1980). 이와 반대로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적 자본의 손실,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가사 일에 대한 선호도의 점증 등으로 인해 다시 고용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과거의 이동경력이 현재의 노동시장 이동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 현재의 통시적 의존성(intertemporal dependency)을 우리는 노동시장 이동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y)이라고 한다. 이동경력은 노동력 상태간(예, 고용-비고용상태간)의 과거의 이동회수 및 각 상태에 머문 기간(예, 바로 이전의 고용, 비고용지속기간)을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Heckman and Borja, 1980; Lynch, 1985) 실제로 과거의 실업기간이 길고, 회수가 많을 수록 그 개인이 현재의 실업상태에서 고용상태로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는 상태의존성이 관측되고 있다. 반대로 과거의 고용지속기간이 길고 이동회수가 적을수록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 이동할 확률 또한 낮을 것이다(Heckman and Willis, 1977).

노동시장 이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태의존성은 인적자본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묵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여성의 참여-불참여의 결정이 현 상태에서의 비용-이익간의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정되며 과거의 경력은 구조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비용-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거나 현재 개인이 위치한 상태에 외연적(external)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추적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들은 특히 젊은층의 노동시장 이동 추정에 있어서의 상태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즉, Flinn and Heckman, 1982; Heckman and Willis, 1977; Heckman and Borja, 1980; Long and Jones, 1980; Lynch, 1985).

6) 성역할(性役割)의 사회화(社會化)와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 즉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의 경력선택 혹은 시간의 분배 등은 가족과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 선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ielby and Bielby, 1984; Rosenfeld and Spenner, 1986). 그러나 개인의 가치나 선호가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과거의 연구에서는 거의 도외시 되어 왔다 (Spitze and Waite, 1980). 사회학의 전통적 행위이론에 의하면(Parsons and Bales, 1955) 개인의 이러한 태도나 가치는 초기의 사회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화이론은 특히 성역할(gender-role)에 대한 초기의 의식화를 강조한다. 기능주의적 관점(Parsons and Bales, 1955)에서 성역할의 사회화는 안정된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은 공적(public) 영역을, 여성은 사적(private) 영역을 책임지는 것, 즉 사회경제적 삶의 두 영역에 대한 성역할 분담이 사회적 요구라는 것을 개인들로 하여금 내제적으로 인식케 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위하게 한다(Gerson, 1985). 이러한 성역할의 사회화는 그러나 개인이 자라난 가정배경이나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직업 및 교육정도로 가늠되는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어린시절 자라난 지역(도시, 농촌) 등을 개인의 성역할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볼 수 있다.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과 지속율이 높을 것이다. 또한 가사일보다 시장노동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확률을 높이는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할 것이다(Sandell and Shapiro, 1978; Polacheck, 1977).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가정형성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독자적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 및 출산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출산 자녀의 수도 적은 경향이 있어(Waite and Stolzenberg, 1976), 노동시장에의 지속적 참여가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역할, 경제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태도나 선호도는 객관적 제약 조건들, 즉 교육, 나이, 생애주기 등의 변수와는 독립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Bielby, 1992). 실제로 독자적인 일경력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결혼·출산 등의 생애주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지속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ong and Jones, 1980 참조).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노동시장 이동간에 어떤 결정적 상관관계를 상정하기는 힘들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시장노동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일을 해야 하거나, 시장노동을 선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가사일의 제약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Moen and Smith, 1986). 동시에 우리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가 노동시장참여 경험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초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애초의 태도나 가치를 바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7) 노동시장의 사회학: 여성노동력 이동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이 주로 공급의 측면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중점을 두는 반면 노동시장의 사회학은 경제학의 그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수요의 측면과 구조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소콜로프, 1990; Beck, Horan and Tolbert, 1978; England, 1982; Granovetter, 1988; Kalleberg and Sorensen, 1979). 실제로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적 요인들, 즉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 성 차별, 낮은 임금과 제한된 승진 기회 등에 의해서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행위는 제한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skin and Hartman, 1986).

사회학적 연구들은 특별히 고용된 직종(occupation), 부문적 위치(sector) 그리고 노조의 유무 등을 개인적 변수들과는 독립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적 변수들로 들고 있다. 이는 고용되어 있는 직종, 부문(공사), 노조의 유무에 따라서 고용주의 고용행위, 임금 및 복지, 승진 기회, 근무 시간의 유연성 정도 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서비스 직종이나 대부분의 육체노동직 등 사회적 신분이 낮은 직종들은 낮은 임금, 낮은 고용안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그 특징이다.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해고될 위험성이 높거나 장기적인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인을 발견하기 어려워 쉽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거나 경제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다시 진입하는 비연속적 참여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Goldin, 1983; Reskin and Hartman, 1986; Terry, 1982).

실제로 생산직이나 일반 블루 칼라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체재기

간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보다 짧은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Goldin, 1983). 한편 서비스 업종의 직장은 가사일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직종에서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고 찾은 이(휴)직 및 입직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력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력과는 달리 이직-입직의 반복율이 높고 단속적인 참여경력이 특징적이다.

동시에 공(公)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이직율이 사(私)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력의 이직율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Osterman, 1982). 이것은 공기업들이 사기업들 보다 고용 상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법이나 다른 공적 규제들의 압력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슷한 이유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고용, 승진, 해고 등이 단체협약의 통제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고용안정도가 그렇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조건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 공기업, 그리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비해 노동시장 퇴장율이 낮고 퇴장한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노동력의 노동력 공급과 취업율은 또한 현 거주지역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와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업률이 높거나 여성들에게 적절한 직업이 별로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력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또한 현 직장에서의 해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 고용상태로부터의 퇴장율이 높고 재입직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노동시장 이동과정의 동태적(動態的) 분석을 위한 자료 및 방법론적 문제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dynamic analysis)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경력 (work history)에 대한 연속시간적 자료가 필요하다. 연속시간의 단위는 요구되는 분석의 염밀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日) 혹은 주(週)로 정하고 있다. 개인의 일경력은 따라서 일 혹은 주단위로 노동시장에의 참여-불참여(혹은 고용-비고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하여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결혼-출산 등의 생애전이과정과의 동적인 상호의존성을 분석에서 고려

〈표 1〉 여성의 노동시장이동 분석을 위한 복합전이모형

결혼 전 참여	\rightarrow \leftarrow	결혼 전 불참여	\rightarrow	출산 전 참여	\rightarrow \leftarrow	출산 전 불참여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결혼 후 참여	\rightarrow \leftarrow	결혼 후 불참여	\rightarrow	출산 후 참여	\rightarrow \leftarrow	출산 후 불참여

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경력 (marriage and childbirth history)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위의 두 가지 경력자료를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복합전이모형 (multi-state transition model)을 구축할 수 있다(〈표 1〉). 일단 이러한 모형이 구축되면 결혼-출산과 노동시장이동이 동적으로 연계된 이동률을 추정할 수 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론은 Phang, 1994: Ch. 4 참조).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방법론적 문제는 전이율의 기간의존성 (duration dependence)과 비가시적 상이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의 문제이다 (Tuma and Hannan, 1984; Tuma, Hannan and Groeneveld, 1979; Winship, 1986). 기간의존성은 기본전이함수의 시간구조 (time structure), 즉 현 상태로부터의 전이율이 시간(t)의 경과와 함께 부가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현 상태에의 체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이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부(-)의 기간의존성; 현 체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이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정(+)의 기간의존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용상태로부터의 퇴장율과 관련하여 우리는 부의 기간의존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나 여러 가지 고용조건들이 향상될 것이고 현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어 그 만큼 이직율이 부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비고용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전이율은 정이나 부의 기간의존성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 탐색 이론 (job search theory)에 의하면 탐색기간이 길어지면 탐색자의 기대의중임금이 비례하여 낮아지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입직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ippman and McCall, 1976). 따라서 이 경우 고용상태로의 진입율은 비고용 기간과 정의 의존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비고용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인적자본의 점차적

감손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용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고용 상태로의 재진입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Mincer and Polachek, 1974). 이 경우 현 비교용상태에의 체재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상태로의 진입율이 낮아지는 부(-)의 기간의존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전이율의 기간의존성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도출되는 기술적 어려움은 개인간의 관측되지 않은 상이성(heterogeneity)의 결과로도 전이율의 기간의존성이 모형에서 경험적으로 관측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반 회귀모형과는 달리 전이율의 분석모형에 있어서는 관측되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을 경우 다른 독립 변수들의 추정계수에 심각한 오차를 가져오고 전이율의 가장된(spurious) 기간의존성이 결과되게 된다(Kalbfleisch and Prentice, 1980).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행위는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 개인간의 상이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이율 모형분석에서는 정확한 계수추정을 위해 관측되지 않는 개인 간의 상이성이 적절히 통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Trussell and Richards, 1985). 경험적 관찰이 어려운 개인의 능력이나 선호(preferences),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노동 시장 진입-퇴출과 연관되어 있지만 측정이 어려운 개인적, 제도적 고정비용 등이 그 대표적인 변수들이다.⁵⁾

3. 맺는말

최근의 여성노동시장(이동) 연구는 과거의 정태적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과정에 걸친 개인들의 자세한 경제활동경력(work history)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력 각 상태간의 이동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젊은 여성들의 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기간의 지속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참여의 계속성은 여성들의 나이 그리고 가정형성 주기변수들에 따라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 특히 결혼과 출산이 고용지속성과 갖는 강한 부(-)

5)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경우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높은 기회 비용, 가정에서의 가사부담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있어서 대표적인 고정비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Moen(1985)의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적 연관은 미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이 아직도 여성들에게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일과 가족 사이에서 제한된 자원인 시간을 분할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⁷⁾ 참여 여성노동력의 안정된 고용경력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직장(공공) 택아시설의 설치, 택아비용의 보조, 육아휴가 등을 통하여 기혼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덜어 주는 것일 것이다.⁸⁾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개인의 인적자본변수들(즉 교육 경험 등)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수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인적자본이 고용지속성과 갖는 정적 관계는 — 결혼-출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 고용되었을 경우 받는 시장임금, 지역 실업율, 그리고 직종으로 대표되는 일반 고용조건에 상당히 의존적인 것을 연구의 결과들은 보여준다(Desai and Waite, 1991; Reskin and Hartman, 1986; Phang, 1994). 반면에 전통적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관측되어온 배우자의 수입은 젊은 여성들의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hang, 1994). 이는 가정과 노동시장이라는 두 사회제도에 있어서의 기회구조의 변화, 즉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가정이라는 사회경제적 보장체의 역할약화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의 확대는 최근 젊은 여성 노동력의 ‘합리적’ 선택의 틀을 독자적 노동시장 참여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비고용 사이의 반복되는 전이과정을 통해 개인들간에 상이한 고용경력이 형성되며 이러한 과거의 경력에 따라서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율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Lynch, 1985; Phang, 1994). 즉 과거의 고용경력이 길고 안정적일수록 현 고용지속기간이 길고 과거의 비고용기간이 길수록 비고용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동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정책이 일시적인 수요공급 요인들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안정된

7) 참고로 김훈(1995)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활동중인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0% 이상이 취업을 할 경우 부분고용(part-time)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여성 노동력이 지고 있는 가사의무의 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특히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저학력 저소득층 중에서 훨씬 높고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노동력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의 도모는 남성 노동력을 포함하는 하층계급의 생활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용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동일한 일에 대한 남녀간의 보수 및 승진기회의 차이를 점차 해소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용경력에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의 이론적 개관은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여성화가 진전되어 있는 선진국의 노동시장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양태 및 과정자체가 다른 한국 여성노동시장에의 적용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한국의 경우 특별히 잠재적 여성인력의 적극적 노동시장 진출을 막는 구조적 요인들(즉 제한된 입직 및 승진기회 등)과 기존의 이론적 모형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학력층의 낮은 참여율(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9) 김영화(1990), 박세일(1984) 등 참조.

참고문헌

- 김영화(1990), “한국노동시장의 분절과 남녀임금불평등” 송호근(편), 『노동과 불평등』 도서 출판 나남.
- 김 훈(1995),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가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자료 95~09.
- 박세일(1984),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 『韓國의 賃金構造』, 한국개발 연구원.
- 소콜로프(1990), 女性勞動市場理論, 이효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어수봉(1993), 『韓國의 女性勞動市場』, 한국노동연구원.
- Alexander, K. and T. Riley (1981), “Estimating the Effects of Marriage Timing on Educational Attainment: Some Procedural Issues and Substantive Clar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43~156.
- Beck, E.M., P.M. Horan and C.M. Tolbert II. (1978), “Stratification in a Dual Economy: A Sectoral Model of Earnings Deter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704~720.
- Becker, G. (1965),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ianchi, S.M. and D. Spain (1986), *American Women in Transi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ielby, D. (1992), “Commitment to Work and Famil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81~302.
- Bielby, D. and W. Bielby. (1984), “Work Commitment, Sex-Role Attitudes and Women's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234~247.
- Blau, F.D. and M. Ferber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 Bowen, W. and T. Finegan (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mpass, L.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 483~498.
- Cain, G. (196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An Economic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g, Jiyeun (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herlin, A.J. (1992),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 K.B. and L.H. Summers (1982), “The Dynamics of Youth Unemployment,” in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s: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ed. by R.B. Freeman and D.A. Wi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rcoran, M. (1982), "Employment Consequences of Teenage Women's Nonemployment," in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s: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ed. by Richard B. Freeman and David A. Wi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amer, J.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67~190.
- Desai, S. and L.J. Waite (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England, P. (1982), "The Failure of Human Capital Theory to Expla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 358~370.
- Felmlee, D.H. (1984), "A Dynamic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Exits," *Demography* 21: 171~183.
- Flinn, C. and J. Heckman (1982), "New Methods for Analyzing Individual Event Histories," *Sociological Methodology* 12: 99~140.
- Franz, Wolfgang (1985), "An Economic Analysis of Female Work Participation, Education, and Fertility: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S218~S234.
- Gerson, K. (1985), *Hard Choices: How Women Decide About Work, Career and Motherhood*,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in, C. (1983), "Life-Cyc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isto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 No. 1251, NB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 (1988), "The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Labor Market Analysis: A Social Structural View," in *Industries, Firms, and Job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ed. by G. Farkas and P. England, New York: Plenum Press.
- Gronau, R. (1973),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fe's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63: 634~651.
- Heckman, J.J.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_____, (1979), "New Evidence on the Dynamics of Female Labor Supply," in *Women in the Labor Market*, ed. by Cynthia B. Lloyd, E. Andrews and C. Gilro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ckman, J. and G. Borjas (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s,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ica* 47: 247~283.

- Heckman, J. and T. McCurdy (1980), "A Life 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XVII: 47~74.
- Heckman, J. and B. Singer (1992), "Social Science Duration Analysis," in *Longitudinal Analysis of Labor Market Data*, ed. by J. Heckman and B. Sing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ckman, J. and R. Willis (1977), "A Beta-Logis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Sequential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27~58.
- Hogan, D.P. and N.M. Astone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 Hout, M. (1978), "The Determinants of Marital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1960-1970: Inferences from a Dynamic Model," *Demography* 15: 139~159.
- Kalbfleisch, J. and R. Prentice (1980),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 Time Data*, New York: Wiley.
- Kalleberg, A.L. and A.B. Sorensen (1979), "The Sociology of Labor Mark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351~379.
- Lancaster, T. (1990),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ransition Dat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wless, J. (1982), *Statistical Models and Methods for Lifetime Data*, New York: Wiley.
- Leibowitz, A.S. (1974), "Education and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in F.T. Juster (ed.), *Education, Incom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Long, J.E. and E.B. Jones (1980), "Labor Force Entry and Exit by Married Women: A Longitudinal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1~6.
- Lynch, L.M. (1985), "State Dependency in Youth Unemployment: A Lost Gener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28: 71~84.
- Mare, R.D., C. Winship and W.N. Kubitschek (1984), "The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 Understanding the Age Pattern of Employ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26~358.
- Marini, M. (1984), "Wome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Timing of Entry into Paren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491~511.
- _____, (1978),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at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483~507.
- Martin, J. and C. Roberts (1984), "Women and Employment: A Lifetime Perspective," Dept. of Employment,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 Masnick, G. and M. Jo Bane (1980), *The Nation's Families: 1960-1990*, Cambridge, MA: Joint Center for Urban Studies of MIT and Harvard University.
- Mincer, J. (1969),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NB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ncer, J. and S. Polacheck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in T.W. Schultz (ed.), *The Economics of Fami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en, P. (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 by G. Elder J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oen, P. and K. Smith (1986), "Women at Work: Commitment and Behavior over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Forum* 1: 450~474.
- Montagna, P. (1977), *Occupations and Society: Toward a Sociology of the Labor Marke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ott, F.L. and D. Shapiro (1983), "Complementarity of Work and Fertility among Young American Mothers," *Population Studies* 37: 239~252.
- Nakamura, A. and M. Nakamura (1991), "Children and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of Econometric Approaches," J. Siegers *et al.* (eds.), *Female Labo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New York: Springer Verlag.
- Nakamura, A., M. Nakamura and D. Cullen (1979), *Employment and Earnings of Married Females*, Toronto, Canada: Statistics Canada.
- Oppenheimer, V.K. (1970),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Monograph Series, No. 5. UC-Berkeley.
- _____.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563~591.
- Osterman, P. (1980), *Getting Started: The Youth Labor Marke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_____. (1982), "Affirmative Action and Opportunity: A Study of Female Quit R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4: 604~612.
- Parsons, T. and R. Bales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Phang, Hanam (1994),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iore, M. (1975), "Notes for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Labor Market Segmentation*, ed. by R. Edwards, M. Reich and D. Gordon. Lexington, Mass.:D.C. Heath.
- Polacheck, S. (1979), "Occupational Segregation among Women: Theory, Evidence and a Prognosis," in *Women in the Labor Market*, ed. by C. Lloyd, E. Andrews and C. Gilro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skin, B.F. and H.I. Hartman (eds.) (1986), *Women's Work, Men's Work: Sex Segregation on the Job*,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Rosenfeld, R.A. (1980), "Race and Sex Differences in Career Dynam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45: 583~609.
- Rosenfeld, R.A. and K.I. Spenner (1986), "Women' s Work and Women' s Career: A Dynamic Analysis of Work Identity in the Early Life Course," in *Social Structure and Human Lives*, ed. by M A. Riley. Newburry Park, CA: Sage.
- Sandell, S. and D. Shapiro (1978), "The Theory of Human Capital and the Earnings of Women: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3: 103~117.
- Schultz, T. (1979), "Estimating Labor Supply Functions for Married Women,"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ed. by J. Smith.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J.P. (1979),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J.P. and M. Ward (1985), "Time-Series Growth in the Female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S59~S90.
- Smith-Lovin, L. and A.R. Tickameyer (1978),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Behavior, and Sex Role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541~557.
- Spitze, G. and L. Waite (1980.), "Labor Force and Work Attitude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7: 3~32.
- Sweet, J.A. (1973), *Women in the Labor Force*, New York: Seminar Press.
- Terry, S.L. (1982), "Unemployment and It' s Effect on Family Income in 1980," *Monthly Labor Review* 105: 35~43.
- Trusell, J. and T. Richards (1985), "Correcting for Unmeasured Heterogeneity in Hazard Models Using the Heckman-Singer Procedure,"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5.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uma, N.B. and M. Hannan (1984), *Social Dynamics: Model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 Tuma, N.B., M.T. Hannan and L.P. Groeneveld (1979), "Dynamic Analysis of Event Histo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820~854.
- Waite, L. and R. Stolzenberg (1976), "Intended Childbearing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Insights from Nonrecursive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235~252.
- Willekens, F. (1987), "The Marital Status Life Table,"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Applications*, ed. by J. Bongaarts, T. Burch and K. Wachter. Oxford: Clarendon Press.
- Winship, C. (1986), "Age Dependence, Heterogeneity, and the Interdependence of Life Cycle Transitions," in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6. American Sociological Assoc.
- Young, C. (1990), *Balancing Families and Work: A Demographic Study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Canberra,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bstrac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dividu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Hanam Phang*

The rapid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has been observed to be one of the marked socioeconomic trends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Particularly dramatic was the rise in participation by young women during the family formation stage of their life. Large part of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increased job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service economy, changes in the traditional sex-role in the social institution of 'family' and demographic changes such as decrease in fertility and increase in divorce rates, which have critical implication for women's labor force activity.

At the same time changes in the social and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women's role in society are also important. Gradual liberalization of society weakened the 'assumed' legitimacy of the paternalistic ideology of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e., men = economic

* Research Fellow of Korea Labor Institute

Research Area: Labor Market, Social Stratification

Major Publication: "Employment-Nonemployment Transitions over the Life Course among Young Women of NLSY 1979-1991: An Event History Analysis," *Working Paper 95-09*,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bo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over the Early Life Course: A Multistate Life Table Analysis," *Discussion Paper*, DP #1062-95,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el: 783-6083

fax: 784-7684

e-mail: phang@ns.kli.re.kr

activity, women = homemaking, and as a result more women came to have more positive pla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These changes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market and in the family have brought in changes in the economic behavior of women. As a result, more women now tend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full-time rather than part-time and return to job after marriage and childbirth. These trends show that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 now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women's life course than ever.

In that perspective,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dividu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dynamics (entry and exit) and related findings from past empirical studi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d (1)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ccording to age and life course stage, (2) economics of female labor supply, (3) educ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 (4) past employment history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5) socialization of sex-role and women's labor market behavior, (6) sociology of labor market: structural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7) methodological problems in analyses of labor market dynamics.